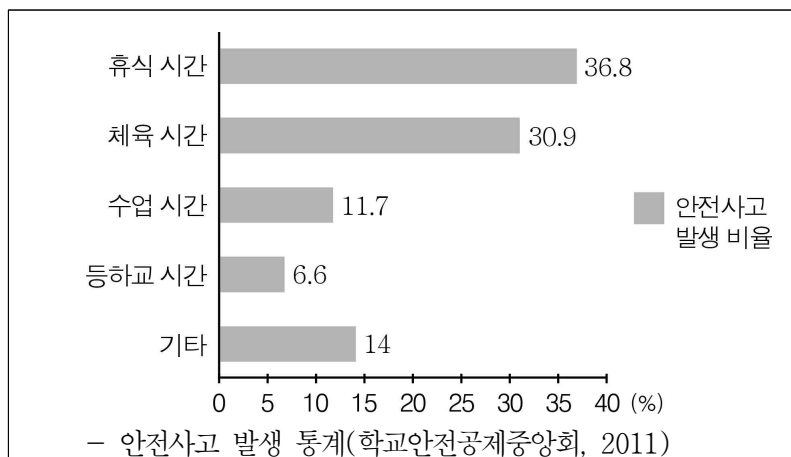


[1~2] 다음은 ‘학교 안전사고’를 주제로 한 3분 말하기에서 학생이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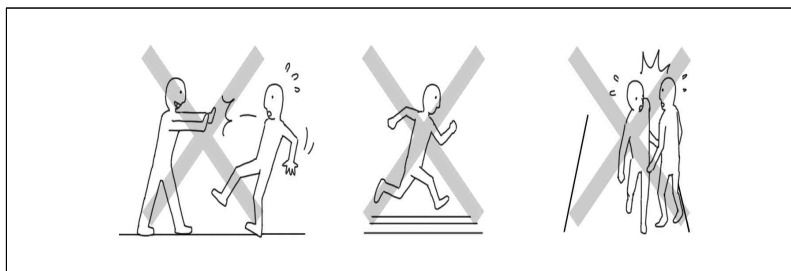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우리 반 ○○와 △△가 부딪혔던 일, 기억하시죠?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난 후)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반 모두는 학교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학교 안전사고의 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많이 일어날 것 같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난 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의외라는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한 후) 여러분의 예상과 달리 휴식 시간에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36.8%로 가장 많습니다. 아마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고 서로 밀치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유형도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학생들끼리 부딪치거나, 미끄러지는 것이지요.

휴식 시간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안전한 휴식 시간 만들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준비한 화면을 함께 보시죠.



제가 제안하는 실천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계를 보고 말의 속도를 조금 빨리 하여) 친구들과 지나친 장난은 삼가고, 뛰지 않고, 복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생활화한다면 휴식 시간에 일어나는 사고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계를 다시 보고 말의 속도를 더욱 빨리 하여) 우리 학급부터 ‘안전한 휴식 시간 만들기 운동’을 적극 실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학교 안전사고’를 주제로 한 3분 말하기 >

1. 청중 분석

- ◆ 대상 : 학급 친구들
- ◆ 특성 :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 ①

2. 발표 전략

- ◆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여 화제가 지닌 심각성을 부각함. ②
- ◆ 화제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유도함. ③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행동의 변화를 촉구함. ④
- ◆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움. ⑤

2. 위 발표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휴식 시간에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제시해야 하지 않았을까?
- ②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를 발표 도입부에서 먼저 밝혀야 하지 않았을까?
- ③ 정해진 시간 내에 발표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적절히 안내해야 하지 않았을까?
- ④ 시각 자료를 제시하기에 앞서 청중들이 시각 자료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았을까?
- 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사고 발생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에 출처를 제시해야 하지 않았을까?

[3~4] 다음은 학교 신문에 동아리 탐방 기사를 쓰기 위한 인터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정우: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리 탐방 기사를 담당한 임정우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 안녕하세요? 선배님, 편하게 말씀 낮추세요. [A]

정우: 제가 선배라도 공식적인 인터뷰인데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시간을 보니 점심 식사를 막 마치셨을 때인데, [B]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현지: 네. 잘 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우: 여기에 오니까 정말 소극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무대도 있고 조명도 있고……. 지금도 저기에서 학생들이 연극 연습을 하고 있네요. 저 학생이 주인공인가 보죠? [C]

현지: 네. 저 학생이 주인공이에요. 정기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정우: 그렇군요. 이번 공연도 기대가 되네요. 어! 그런데 벽에 뮤지컬 배우인 최연기 씨 사진이 있네요.

현지: 우리 연극반 5기 선배님이세요.

정우: 아, 그랬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우리 학교 선배님이라는 것은 몰랐네요. 최연기 선배님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나요? [D]

현지: 네. 최연기 선배님은 바쁜신 중에도 자주 학교에 오셔서 후배들 연기도 봐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신답니다.

정우: 부럽네요. 그런데 연극반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나배우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현지: 네. 나배우 선생님은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연출을 많이 해 보셔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신답니다. 하지만 연습할 때는 굉장히 엄하셔서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안 봐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원을 빠져야 하는 아이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E]

정우: 아, 그렇군요.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럼 현지 양이 연극반 지도 교사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

현지: 저는 연극반 지도 교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 꿈은 뮤지컬 주연 배우가 되는 거예요.

정우: 제 말은 그게 아닌데…….

3.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 높임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B]에서 시간적 상황이 인사말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C]에서 담화 참여자들이 시·공간적 상황을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구두 언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④ [D]에서 상호 교섭을 통해 질문과 답변 내용이 즉흥적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에서 담화 참여자 사이의 지위 차이가 능동적인 상호 작용에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4. [가]의 의사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답변해야 해.
- ②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 공감적 듣기를 해야 돼.
- ③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말하기 전략을 사용해야 해.
- ④ 우리말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말하기에 잘 활용해야 돼.
- ⑤ 상대방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돼.

5. 다음 대화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효진: 창민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 혹시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니?

창민: 응. 동영상 제작 과제 때문에. 우리 조원들이 방과 후에 바쁘다며 잘 모이지를 않아. 조별 과제인데 나 혼자만 걱정하는 것 같아.

효진: 그러게. ㉡ 넌 조장이라고 대본도 혼자 썼는데, 많이 속상하겠다. 차라리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건 어때?

창민: 음……. ㉢ 그래도 내가 조장인데, 그건 웬지 선생님께 이르는 것 같아서 싫어. 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친구들을 모아서 과제를 해결하고 싶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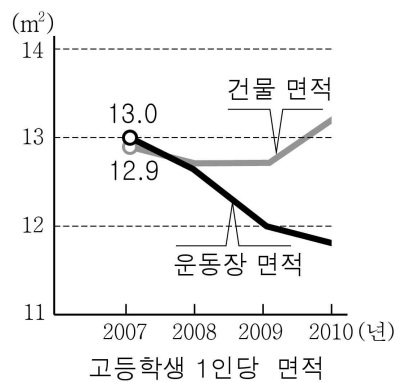
효진: 와! 창민아, ㉣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넌 정말 멋진 조장이다. 그럼 꼭 방과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모두가 나오는 장면은 점심시간 틈틈이 촬영하고 방과 후에는 시간이 맞는 친구끼리만 모여서 부분 촬영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 내 생각 어때니?

창민: 맞아. 왜 점심시간 생각을 못했지? ㉤ 네 말대로 하면 과제를 끝낼 수 있겠다. 고마워.

- ① ㉠: ‘효진’은 ‘창민’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추측해서 물어보고 있다.
- ② ㉡: ‘효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창민’에게 공감하고 있다.
- ③ ㉢: ‘창민’은 자신의 관심사를 고려해 ‘효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④ ㉣: ‘효진’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창민’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 ⑤ ㉤: ‘창민’은 ‘효진’의 이야기를 수용하여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6. 다음 자료를 읽고, <조건>에 따라 글의 내용을 구상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신문 기사



우리나라 학생들의 체력은 약해지고 있는데, 체육 시간 외에 별다른 체육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운동장마저 해마다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략) ... 운동장이 없는 학교 학생들은 운동장이 있는 학교 학생들보다 운동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 ○○ 신문 -

(나) 연구 자료

그 동안 소뇌는 근육 운동을 제어하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뇌가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사고나 집중력, 감정에까지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정서 발달과 학력 신장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다) 외국의 사례

- 일본: 모든 중·고교에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중학생 64.9%, 고등학생 40.7%가 참여함.
- 호주: 아동과 청소년(5~18세)은 매일 60분 이상 체육 활동에 참가해야 함.

< 조 건 >

- (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의 해결과 관련되도록 할 것.
- (가), (나), (다) 모두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
- 자기가 쓸 글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상 독자를 설정하고 명시적으로 밝힐 것.

- ① 체육 활동이 정서 발달과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학생들에게 학교의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써야겠어.
- ② 다양한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체육 활동과 학력 신장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글을 써야겠어.
- ③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하고 체육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지적한 후, 학부모님들께 자녀들의 체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글을 써야겠어.
- ④ 체육 활동이 학생들의 체력 단련과 정서 발달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행정 기관 담당자에게 부족한 학교 체육 시설과 운동장의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을 건의하는 글을 써야겠어.
- ⑤ 체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구청 담당자에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활동 공간을 늘려 달라는 제안을 해야겠어.

[7 ~ 8] 다음은 ‘봉사 활동에 관한 체험 수기’를 쓰기 위한 계획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중심 내용	내가 지난 일 년간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쳤던 봉사 활동 체험과 깨달음
예상 독자	우리 반 학생들
예상 독자 분석	우리 반 학생들은 학교의 권장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대부분 형식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받아주는 기관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할 뿐, 봉사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기관이나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곳에서 보람 있는 봉사 활동을 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글쓰기 전략	우리 반 학생들이 나의 지난 체험이 담긴 글을 읽으면서 봉사 활동의 의의를 깨닫고, 자신들이 해 왔던 봉사 활동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도록 한다.
서술 방향	㉠

7.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남을 돕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일화를 감동적으로 서술한다.
- ② 봉사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학생들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활동 기관을 소개한다.
- ③ 학생들의 형식적인 봉사 활동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후, 봉사 활동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를 설명한다.
- ④ 내가 재능 기부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을 서술한다.
- ⑤ 내가 지난 일 년간 참여했던 봉사 활동을 소개하며,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감동과 깨달음이 잘 드러나게 서술한다.

8. 글을 쓰기 위한 계획과 <조건>을 함께 고려할 때, 글의 끝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봉사 활동에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낼 것.
- 인상적인 마무리를 위해 역설적인 발상을 활용할 것.

- ① 이렇게 한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면서 세상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 애써 주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② 나는 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깨달았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쥔 줄만 알았지, 다른 이들과 나눌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 ③ 지난 일 년 동안의 힘들고도 즐거웠던 봉사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많은 후배들이 자신의 재능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 열심히 봉사해 주기 바란다.
- ④ 나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봉사 활동을 시작하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게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이다.
- ⑤ 나는 초등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오히려 내게 따뜻함과 순수함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과제** : ‘가족 간의 대화’를 주제로 설득적인 글 쓰기

□ **글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 나의 글쓰기에 대하여

내가 수행할 과제는 ‘가족 간의 대화’를 주제로 설득적인 글을 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며 가족 간의 대화에 적극 나서자는 내용으로 글을 썼다. 하지만,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만으로는 독자들을 충분히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족이 모여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을 더하였다. 가족이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용을 보강하니 한 편의 글이 완성되었다.

□ **학생의 글**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갖자.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 부모는 일로, 자녀는 공부로 바빠서 서로 얼굴을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 오랫동안 대화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가정은 삭막한 곳으로 변하게 된다. 가정에서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가족들은 지친 마음을 ㉡ 위로한다. ㉢ 대화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윤희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화가 아무런 노력 없이 ㉣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 활동하면 좋을 것이다. ㉤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9. ‘글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를 분석하여 독자의 흥미에 맞게 내용을 구성한다.
- ② 주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생성한다.
- ③ 중심 내용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전개한다.
- ④ 주어진 자료에 담긴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충실하게 드러낸다.
- ⑤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글의 주제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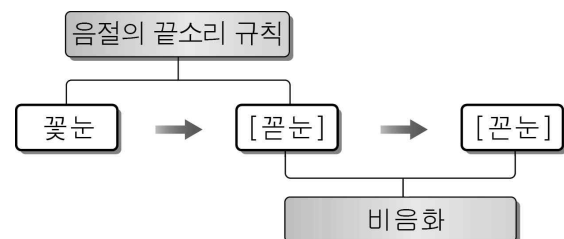
- ① ㉠은 맞춤법에 맞게 ‘오랫동안’으로 고쳐 쓴다.
- ② ㉡은 문맥을 고려하여 ‘위로받을 수 있다’로 바꾼다.
- ③ ㉢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헛되이’로 바꾼다.
- ⑤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러면’으로 바꾼다.

11. <보기>의 ㉠과 동일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오늘 국어 시간에 두 가지 음운 규칙을 배웠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잎’이 [입]으로 소리 나는 것처럼 우리말 받침으로 소리 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규칙은 비음화인데 ‘뱀만’이 [뱀만]이 되는 것처럼 ‘ㄱ, ㄷ, ㅂ’이 ‘ㄴ, ㅁ’ 앞에서 비음으로 소리 나는 것이다.

이제 ㉠ ‘꽃눈’이 [꼰눈]으로 소리 나는 현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 ① 끝까지[꼰까지] ② 부엌도[부엌또] ③ 눈약[눈낙]
- ④ 놓는[논는] ⑤ 뎡밥[뎡뽀]

12. <보기>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용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3점]

< 보 기 >

☐ 품사 분류 기준

- 형태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
-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 예문

- 호수가 깊다.
-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기준	분류	(※ Ⅱ는 분류의 경계를 표시함.)
①	형태	깊다, 깊이Ⅱ호수, 가, 강, 의, 는, 누구, 도, 모르다	
②	기능	깊다, 모르다Ⅱ호수, 강, 깊이Ⅱ누구Ⅱ가, 의Ⅱ는, 도	
③	기능	깊다, 모르다Ⅱ호수, 강, 깊이, 누구Ⅱ가, 의, 는, 도	
④	의미	깊다, 깊이Ⅱ모르다Ⅱ호수, 강Ⅱ누구Ⅱ가, 의, 는, 도	
⑤	의미	깊다Ⅱ깊이Ⅱ모르다Ⅱ호수Ⅱ강Ⅱ누구Ⅱ가Ⅱ의Ⅱ는Ⅱ도	

13. <보기>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점원: 손님, 어떤 옷을 ㉠ 찾으십니까?

손님: 셔츠를 좀 보려고요. ㉡ 저희 아버지께서 입으실 거거든요.

점원: 이 셔츠는 어떠세요? 선물로 ㉢ 드리시면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손님: 저희 아버지는 ㉣ 어깨가 넓으신데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점원: 그러시면 ㉤ 어르신을 모시고 한번 들러 주세요.

- ① ㉠: ‘-니까’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② ㉡: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 ‘-시-’를 사용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을, ‘드리다’를 사용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 ④ ㉣: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 신체의 일부가 주어로 올 때도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 ⑤ ㉤: 높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1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보다’, ‘듣다’, ‘느끼다’, ‘맛보다’, ‘말다’와 같은 단어들은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인식이나 판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볼까요?

- ①

보다

 { 다회를 보며 인상을 썼다.
이 도시를 유통의 중심지로 본다.
- ②

듣다

 {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종종 농담을 진담으로 들는다.
- ③

느끼다

 { 포근한 이불의 감촉을 느꼈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다.
- ④

맛보다

 { 찌개의 간이 어떤지 맛보았다.
인간은 때때로 상실감을 맛본다.
- ⑤

말다

 { 라일락 향기를 말으니 봄이 온 것을 알겠다.
형사는 그가 범인이라는 냄새를 말았다.

15. <보기>의 담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음 뉴스입니다. 사랑의 온도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사랑의 온도계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모금의 목표액을 온도계의 온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계의 온도가 아직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①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 ②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가진 담화가 호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 ③ 상세한 내용 제시 후 일반적 내용을 제시하는 담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④ 비문법적인 표현, 단어의 반복이 나타나는 구어 담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⑤ 1:1 소통을 통해 실시간 의견 교환이 가능한 매체 담화의 특성을 보여 준다.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데카르트와 그 후예들의 문제 설정의 중심에는 ‘주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 철학은 헤겔 이후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이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근대 철학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들 수 있다. 환경론자들에 의하면 근대 철학은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 근거하여 인간을 주체로, 자연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지배되는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부당한 이념을 유포시켰다고 주장한다.

환경론자들은 근대를 주도하고 지배하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과학기술주의에 주목하였다. 과학기술주의는 근대 철학의 영향으로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창고로 바라보았다. 그 결과 자연 파괴는 물론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에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환경론자의 비판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현대 철학자로 하이데거를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근대 철학의 근본적 특징은 인간 중심주의이자 이성 중심주의이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파악되고 지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계산적 사유에 근거한다. 즉 ㉠ 계산적 사유로서의 이성은 모든 ㉡ ‘존재하는 것(존재자)’을 ‘주체’인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존재자의 본원적인 존재 의미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자 본연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열었다. 그는 존재자들이 전체 속에서 의미 있게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존재자는 그러한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그 전체 연관성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은 헤겔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② 환경론자들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였다.
- ③ 과학기술주의자들은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 ④ 환경론자들은 자연 파괴로 인한 피해보다는 인간 삶에 닥친 위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
- ⑤ 하이데거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17. ㉠과 ㉡을 중심으로 하이데거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철학의 이성 중심주의는 ㉠에 근거하고 있다.
- ② 근대 철학에서 ㉠은 인간을 대상화하면서 생성되었다.
- ③ ㉠으로 인해 ㉡의 본원적 존재 의미가 상실되었다.
- ④ ㉡의 본원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을 극복해야 한다.
- ⑤ ㉡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연관성과 유일성을 갖는다.

18. 글쓴이가 윗글에서 <보기>를 활용한다고 할 때, 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 보 기 >

근대 철학에서 ‘주체’는 사유하고 지각하는 존재로서 의식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충동과 욕망 같은 ‘무의식’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① 하이데거의 ‘존재자’ 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 ② 근대 철학의 ‘주체’ 개념을 비판하는 논거로 삼는다.
- ③ 근대 철학에서 ‘주체’ 개념이 변화해 온 과정과 배경을 밝힌다.
- ④ 근대 철학의 관점에서 하이데거의 비판을 재반박하는 논거로 삼는다.
- ⑤ 하이데거의 ‘새로운 사유’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침해 사례에 맞추어 특별법이 제정되다 보니 법률 간의 중첩이나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1년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개인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흔히, 개인 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정도로 생각하여, 개인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예를 들어 인사과 1팀에 김영수 씨와 박영수 씨가 있는 경우, ‘인사과 1팀 영수 씨’라는 정보는 김영수 씨와 박영수 씨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 역시 개인 정보에 포함된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즉, ‘특정성’을 지닌 정보는 물론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 역시 개인 정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문, 홍채, 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특정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고, 나이, 직업, 거주지 주소 등은 특정 가능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다. 따라서 ‘인사과 1팀 영수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 이를 개인 정보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특정성을 지닌 정보는 물론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언제라도 특정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악용에 의해 한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 담당자가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처리 담당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컴퓨터에 아무런 암호 장치 없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실제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법률적 규제는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1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하나의 현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④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ㄱ. A 상점에서는 적립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암호화하여 관리하였다.

ㄴ. B 여론 조사 기관에서는 여론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를 받아 여론 조사 기관의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해 두었다.

ㄷ. C 회사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다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외부로 유출하여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 위 사례는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 ① ㄱ의 주민등록번호, ㄴ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 ㄷ의 아이디는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 ② ㄱ의 손님, ㄴ의 응답자, ㄷ의 고객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③ ㄱ의 정보 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행위는 ‘개인 정보 보호법’의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④ ㄷ의 C 회사가 만약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정보 처리 담당자의 과실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 ⑤ ㄴ과 ㄷ의 정보 처리 담당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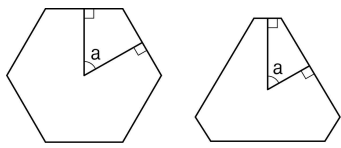
21. 밑글로 보아,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성을 지닌 정보이기 때문이다.
- ②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이기 때문이다.
- ③ 특정성과 특정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 ④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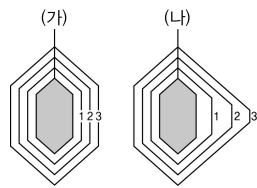
광물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단위 물질로서 특징적인 결정 구조를 갖는다. 광물의 결정 구조는 그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일정하게 배열된 양상이다. 같은 광물일 경우 그 결정 구조가 동일하며, 이러한 결정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규칙적인 겉모양인 결정형(crystal form)도 동일하다. 그런데 실제로 광물들의 결정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니콜라우스 스테노는 등산길에서 채집한 수정의 단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에 궁금증이 생겼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는 수집한 수정의 단면도를 그려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수정 결정의 모양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맞닿은 결정면들이 이루고 있는 각은 <그림1>의 a와 같이 항상 일정하다는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1> 면각 일정의 법칙

스테노는 같은 광물의 결정일 경우 면각이 일정해지는 이유가 ㉠ 결정 내부의 규칙성 때문일 것이라 짐작했다. 당시만 해도 그 규칙성의 이유가 되는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 그가 죽은 뒤 X선이 발견되고 나서야, 결정 모양이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내부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림2> 결정의 성장 과정(결정의 수직 단면)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결정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결정에 주입되는 물질의 공급 정도에 따라 결정면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광물의 작은 결정 두 개를, 같은 성분을 가진 용액 속에 매달아 놓았다고 하자. 이때 (가)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사방에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오른쪽에서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해 놓으면 (가) 결정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상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이상결정)으로 성장하는 반면, (나) 결정은 기형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기형결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 결정의 오른쪽 결정면은 다른 결정면들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해 나갈수록 결정면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의 공급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결정들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가)와 (나)는 같은 광물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면각은 서로 같다. 이처럼 같은 광물의 결정은 그 면각이 같다는 사실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결정들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면각 일정의 법칙은 광물의 결정을 판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 현대 광물학의 ㉡ 초석이 되었다.

22.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면각 일정의 법칙은 무엇인가?
- ② 면각 일정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광물별 결정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④ 결정면의 성장 속도는 결정면의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⑤ 같은 광물의 결정이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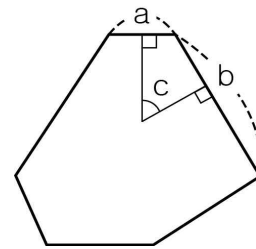
23.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스테노는 ㉠을 추측하기는 했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
- ② 스테노는 ㉠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을 입증했다.
- ③ ㉠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X선이 개발되었다.
- ④ 스테노는 ㉠의 다양한 양상들을 비교하여 분류 체계를 만들어 냈다.
- ⑤ ㉠을 분석한 내용이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24.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떤 광물이 성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평 단면을 보이는 결정이 되었다. (단, 물질 공급 이전의 결정의 초기 모양은 정육각기둥으로 가정하고, 결정의 성장 과정에서 물질 공급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배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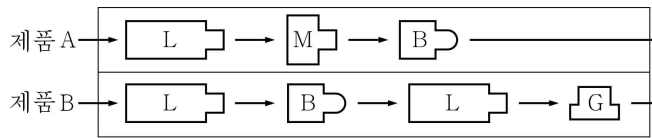
- ① 지금까지와 같이 물질 공급이 지속된다면, a면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 ② 현재의 결정 모양은 a면보다는 b면으로 물질이 더 많이 공급된 결과일 것이다.
- ③ 모든 방향에서 물질이 고르게 공급되었다면, a면과 b면의 면적은 같았을 것이다.
- ④ 현재의 결정이 더 성장하게 되더라도 a면과 b면이 이루는 각 c는 항상 같을 것이다.
- ⑤ 결정의 모양이 달라졌지만,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이 가진 규칙성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다.

25.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붕돌 ② 고임돌 ③ 버팀돌
- ④ 굳은돌 ⑤ 주춧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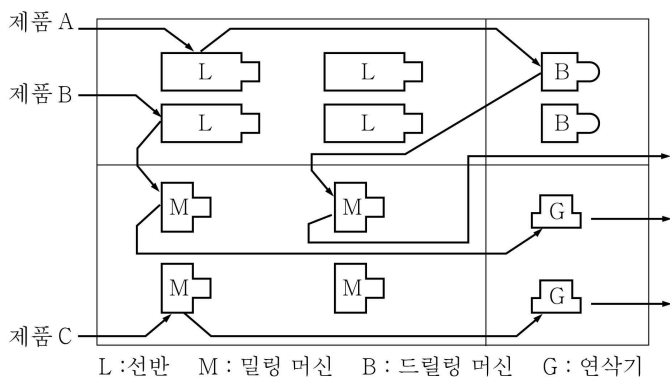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의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하다. 효율적인 설비 배치란 자재의 흐름이 정체됨이 없이 원활하도록 하여 자재의 불필요한 운반을 최소화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적은 노력으로 빠른 시간에 목적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배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비 배치의 방식은 주로 제품의 종류나 그 수량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L:선반 M:밀링 머신 B:드릴링 머신 G:연삭기
<그림1> 제품별 설비 배치

㉠ 제품별 배치(Product Layout) 방식은 생산하려는 제품의 종류는 적지만 생산량이 많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각 제품별로 완성이 될 때까지의 공정 순서에 따라 설비를 배열해 부품 및 자재의 흐름을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공정의 흐름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므로 자재의 운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전체 공정 관리가 쉽다. 그러나 기계 고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공정이 지연될 수 있고, 규격화된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설비 및 배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규격이나 디자인이 변경되면 설비 배치 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L:선반 M:밀링 머신 B:드릴링 머신 G:연삭기
<그림2> 기능별 설비 배치

㉡ 기능별 배치(Process Layout) 방식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고 제품의 디자인이 수시로 변하는 패션 의류나 규격화가 어려운 특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볼 수 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같은 기능의 설비들을 한데 모아 배치한다는 것이다. 기능별 배치를 하게 되면 동일한 설비들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어 설비 관리가 쉽고, 기계 고장과 같은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설비에 따라 자재가 이동하므로 자재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제품별 공정이 서로 달라서 전체 공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룹 배치(Group Layout) 방식은 기능별 배치 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설비 배치 방식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방식의 핵심은 형태나 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고, 그러한 제품군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설비들을 하나의 설비군으로 묶어 소그룹화된 작업장인 셀(Cell)에 배치하는 것이다. 하나의 설비군 안에서 특정 제품군에 속한 모든 제품들이 필요한 공정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공정 흐름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자재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셀별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의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26. 밑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비 배치 방식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상 상황을 예로 들어 설비 배치 방식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기존의 설비 배치 방식을 소개한 뒤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④ 특정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설비 배치 방식이 변화해 온 이유를 상술하고 있다.
- ⑤ 각각의 설비 배치 방식이 출현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27.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전체 공정의 관리가 쉬운 반면, ㉡은 전체 공정 관리가 쉽지 않다.
- ② ㉠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반면, ㉡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 ③ ㉠은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은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 ④ ㉠은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반면, ㉡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 ⑤ ㉠은 자재의 흐름이 단순한 반면, ㉡은 자재의 흐름이 길고 복잡하다.

2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공장’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공장은 다양한 패션 의류를 유행의 변화에 맞춰 디자인을 빠르게 바뀌며 생산해 왔다. 그런데 유행이 달라져도 꾸준히 많이 팔리는 품목이 있어 재고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A공장은 이러한 품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설비 배치를 전환하려고 한다.

① 기존의 설비 배치 방식	유행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별 배치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다.
② 부분적으로 설비 배치 전환이 필요한 이유	현재의 배치 방식으로는 꾸준히 많이 팔리는 품목의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③ 최적의 설비 배치 방식 모색	다품종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몇몇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룹 배치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④ 설비 배치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	거치는 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을 조사해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고, 그에 따라 설비군을 묶어 본다.
⑤ 설비 배치 전환의 기대 효과	동일한 설비를 하나의 셀 안에 모아 둘 수 있어 설비 관리가 더 쉬워질 것이다.

[29 ~ 30] 다음은 ‘승호’의 독서 기록장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읽은 책	멋진 신세계		
작가	올더스 헉슬리	읽은 기간	2013. 3. 2. ~ 3. 6.
독서 활동 기록	㉠ 며칠 전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나는 과학 기술이 참된 인간의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사를 읽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과학 기술의 부정적 부산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다.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을 보고, 나는 이상적인 인류의 미래상을 그린 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제목은 윤리 시간에 배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떠올리게 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소유로 인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과연 멋진 신세계가 가능할까?’,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했을 미래 사회에서 인류가 행복할까?’ 등의 의문이 떠올랐다. ‘멋진 신세계’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안락한 사회였지만, 이 세계의 주민들은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에 의해 태어나 부모가 없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작가에게 ‘왜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를 없앴습니까?’하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며 작가가 ‘멋진 신세계’를 그렇게 그려 놓은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해 나처럼 회의적인 생각을 품었는지도 궁금했다. 그런데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문제는 ‘멋진 신세계’의 사회 시스템을 세밀하게 이해하며 읽지 않은 나의 독서에 있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었다.		
느낀 점	작가는 과학 기술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믿는 과학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나 또한 과학 기술을 맹신하며 그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반성했다. 그리고 ㉡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지 경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29. ‘승호’의 독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전 활동
• 책의 제목을 통해 책의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을 했다.
•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책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었다. ㉠
○ 읽기 중 활동
• 작가의 의도를 추리하면서 작가와 의사소통하는 독서를 했다. ㉡
• 독서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서 활동을 점검하고 조정했다. ㉢
○ 읽기 후 활동
•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반성했다. ㉣
•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았다. ㉤

30. ㉠과 ㉡에 주목해 ‘승호’의 독서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승호’는 ㉠의 독서 상황을 고려해 ㉡과 같이 독서 활동의 의미에 대해 서술했군.
- ② ‘승호’는 ㉠의 독서 목적에 따라 참고 자료를 조사해 ㉡과 같은 결론을 내렸군.
- ③ ㉠에 나타난 ‘승호’의 가치관이 ㉡과 같이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겠군.
- ④ ㉠에 제시된 경험 때문에 ‘승호’는 ㉡과 같이 책 내용의 타당성을 비판한 것이겠군.
- ⑤ ㉠의 문제점을 해결하느라고 ‘승호’는 ㉡과 같이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군.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는 사이에도, 밖은 간간이 어둠 저편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창문이 딸그락거렸다. ㉠ 전신주 끝을 물고 웅웅대는 바람 소리, 짝짝짝 눈발이 흩날리는 소리, 난로에서 툭툭 튀어 오르는 톱밥. 그런 크고 작은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토해 내는 늑은이의 기침 소리와 함께 대합실 안을 채우고 있을 뿐, 사람들은 각기 골똘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 있다.

대학생은 문득 고개를 들어 말없이 모여 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본다. 모두의 뺨이 불빛에 발갳게 상기되어 있다. 청년은 처음으로 그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아늑함이랄까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새삼 놀라고 있다. ㉡ 정말이지 산다는 것이란 때로는 저렇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하는 것 인지도 모른다.

청년은 무릎을 굽혀 바게쓰 안에서 톱밥 한 줌을 집어 든다. 그리고 그것을 난로의 불빛 속에 가만히 뿌려 넣어 본다. 호르르. 뽀뽀꽃이 피어나듯 주황색 불꽃이 타오르다가 이내 사그라져 들고 만다. 청년은 그 짧은 순간의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어머니다. 어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다시 한 줌 집어넣는다. 이번엔 아버지와 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또 한 줌을 조금 천천히 흩뿌려 넣는다. 친구들과 노교수의 얼굴, 그리고 강의실의 빈 의자들과 잔디밭과 교정의 풍경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음울한 표정의 중년 사내는 대학생이 아까부터 톱밥을 뿌려대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는 참이다. 대학생의 얼굴은 줄곧 상기되어 있다.

이 젊은 친구가 어찌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그러면서도 사내 역시 톱밥을 한 줌 집어낸다. 그리고는 대학생이 하듯 달아오른 난로에 톱밥을 뿌려 준다.

㉠ 호르르르. 역시 땀비꽃 같은 불꽃이 환히 피어오른다. 사내는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얼핏 본 듯하다. 허 씨 같기도 하고 전혀 낯모르는 다른 사람인 것도 같은, 확실치 않은 얼굴이었다. ㉡ 사내의 음울한 눈동자가 간절한 그리움으로 반짝 빛나기 시작한다. 사내는 다시 한 줌의 톱밥을 집어 불빛 속에 던져 넣고 있다.

어느새 농부도,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와 춘심이도 이제 모두 그 두 사람의 치기 어린 장난을 지켜보고 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열차***는 두 시간을 연착한 후에야 도착했다.

막상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반가움보다는 차라리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다. 늙은 역장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고, 이어 열차는 천천히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다. 얼핏, 누군가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열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다. 역장은 그 사람이 재 너머 오 씨 큰아들임을 알았다. ㉢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난간 손잡이에 위태로운 자세로 기대어 있는 청년의 모습이 역장은 웬지 마음에 걸렸다. 이내 열차는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남기며 사라져 버렸다.

한동안 열차가 달려가 버린 어둠 저편을 망연히 응시하고서 있던 늙은 역장은 옷에 금방 수북이 쌓인 눈을 털어 내며 대합실로 들어섰다.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역장은 뜻밖에도 아직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미친 여자였다.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이제 난로를 독차지한 채, 아까 병든 늙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집이 어디며, 또 어디서 왔는지 역장은 전혀 모른다. 다만 이따금 그녀가 이 마을을 찾아왔다가는 열차를 타고 떠나곤 했다는 정도만 기억할 뿐이었다. 오늘은 왜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열차를 타지 않았을까 하고 역장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마 그 여자에겐 갈 곳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있어서 출발이란 것은 이 하룻밤, 아니 단 몇 분 동안이나마 홀로 누릴 수 있는 난로의 따뜻한 불기만큼의 의미조차도 없는 까닭이리라.

역장은 문득 그녀가 걱정스러웠다. 올겨울 같은 혹독한 추위에 아직 얼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들어 왔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꿈이라도 꾸는 중인지 땀국물에 젖은 여자의 입술 한 귀퉁이엔 보일락 말락 웃음이 한 조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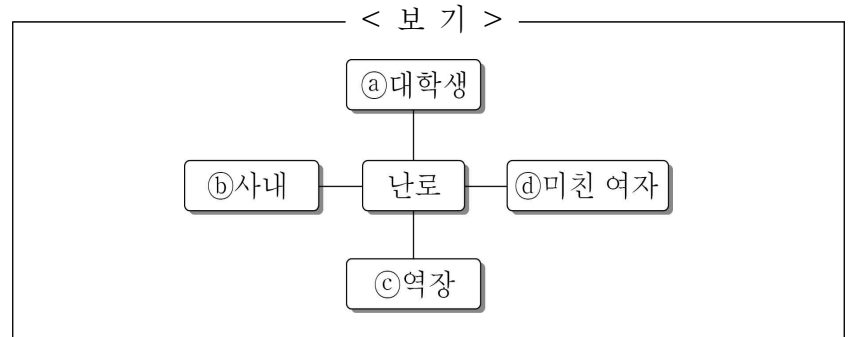
이거 참 난처한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결국 역장은 김 씨를 깨우러 가기 전에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 쥐어줬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모양이었다.

— 임철우, 「사평역」 —

* 완행열차: 빠르지 않은 속도로 달리며 각 역마다 멎는 열차.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운 겨울날의 난로는 연관성 없는 인물인 ㉠과 ㉡가 한 자리에 있게 하는 장치가 되고 있군.
- ② ㉠가 난로에 톱밥을 넣으며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리는 행동은 그 대상이 바뀌어 ㉢에게서 반복되고 있군.
- ③ ㉠과 ㉡가 난로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함으로써 소통하고 있다면 ㉢은 소통의 상황에서 소외되고 있군.
- ④ ㉣가 사람들이 떠난 뒤에야 난로 곁에 다가오는 데서 ㉣의 처지를 짐작해 볼 수 있군.
- ⑤ ㉢가 난로에 톱밥을 넣어 주려고 하는 것은 ㉣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군.

32. **야간 완행열차**의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야간 완행열차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처지에 어울리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② 열차가 두 시간 연착하게 설정함으로써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인물들이 완행열차에 오르는 것은 이들이 인생의 여정을 이어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열차의 출발은 서술의 초점이 역에 남아 있는 인물들에게 옮겨가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인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열차는 그들이 염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3. ㉠~㉣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합실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머릿속 생각을 인물에게 직접 듣는 것처럼 느끼도록 서술하고 있다.
- ③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불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④ ㉣: 인물의 내면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그가 취하는 행동의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 네 숨결 처음 대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 밝은 피 뿔아 네게 흘러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아, 나의 사랑을

먼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서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뺨어 가려무나

척추를 휘어 잡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 네 뺨어 가는 끝을 하냥*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 한 두릅 께어 있는 ㉥ 깎데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별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 나희덕, 「뿌리에게」 -

* 먼우물: 먹을 수 있는 우물물.

* 하냥: '늘'의 방언.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물을 활용해 대상의 부재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특정한 시적 공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 화자의 일관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35 ~ 36]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모성(母性)’은 희생적 사랑이다. 이 사랑에는 포용력과 따뜻함이 있다. 나희덕의 「뿌리에게」는 베픔을 행하는 ‘흙’과 그 베픔을 받아 성장해 가는 ‘뿌리’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이와 같은 모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와 동시에 ‘흙’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모성’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35. ㉠ ~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더운 김’에서 ‘흙’이 지닌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
- ② ㉡: ‘밝은 피’를 ‘뿌리’에게 주는 모습에서 ‘흙’의 희생적 사랑을 느낄 수 있어.
- ③ ㉢: ‘뿌리’를 감싸 안아 주는 ‘흙’에서 포용력을 찾을 수 있어.
- ④ ㉣: ‘뿌리’를 통해 포용력의 회복을 기약하는 ‘흙’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어.
- ⑤ ㉤: ‘깎데기’가 된 ‘흙’에서 마지막까지 희생을 감내하는 모성을 느낄 수 있어.

36. ‘㉠ → ㉢ → ㉤’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모성’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성은 영원히 지속된다.
- ② 모성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하다.
- ③ 모성은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다.
- ④ 모성은 언제나 강인하다.
- ⑤ 모성은 내적으로 성장한다.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남원에 살았던 최척과 옥영 사이에는 만아들 몽석이 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옥영은 **돈우**(頓于)라는 왜병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갔다. 돈우는 늙은 일본 병사로, 부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전쟁 전에는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노를 잘 저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왜장 소서행장이 뱃사공의 우두머리로 삼아 조선에 데려온 것이었다. 돈우는 영리한 옥영을 사랑하여 도망치지 않도록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그러나 옥영이 여자인 줄은 끝내 몰랐다. 옥영은 이미 삶에 뜻을 잃었기에 여러 번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발견하고 구해주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륙불**(丈六佛)*이 옥영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이다.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너는 죽지 말고 열심히 살거라.”

옥영은 잠에서 깨어나 그 꿈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다시 삶에 희망을 갖게 된 옥영은 억지로라도 먹으며 힘을 내고자 하였다. 돈우의 집은 일본 나고야(名古屋)에 있었는데 그 아내는 늙고 딸은 어렸으며, 다른 남자 가족은 없었다. 돈우는 옥영을 집 안에만 있게 하고, 바깥으로는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옥영은 자신이 남자인 체하고 있었기에 거짓으로 말했다.

“저는 본디 몸이 작은 데다가 약골(弱骨)이라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을 때에도 장정들이 하는 일은 잘하지 못하

고, 다만 바느질이나 음식 만드는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돈우는 옥영을 더욱 불쌍히 여기고 잘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옥영에게 사간(沙干)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었다. 전쟁이 끝나고 돈우는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지방 일대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옥영에게는 뱃일을 돕게 하였다.

이때 최척은 중국 소흥부*에 살고 있었는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은 자기 누이동생과 최척을 맺어 주려고도 했으나 최척이 끝내 사양하였다.

“저는 온 집안이 왜적에게 변을 당해 아버지와 아내의 생사(生死)도 모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상복을 벗을 수나 있을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어찌 편안하게 아내를 얻겠습니까?”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의롭게 여기고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들어 죽었다. 또다시 ㉠ 의탁할 곳이 막막하게 된 최척은 강호(江湖)를 떠돌며 두루 명승지를 유람하였다. 용문과 우혈을 찾아보고 동정호를 유람하고 악양루와 고소대에도 올라보았다. 이렇듯 중국의 유명한 산과 강을 다니며 노래 부르고 시를 읊조리며 구름과 물 사이를 배회하다 보니 최척에게는 어느덧 속세를 떠난 듯한 풍모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최척은 해섬도사 왕용이라는 사람에 대해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청성산*이란 곳에 은거하며, 금련단*을 만들고 대낮에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신비한 재주가 있다고 하였다. 최척은 세상에 뜻을 버리고 촉(蜀)의 땅으로 찾아가 신선이 되는 법을 배우려고 마음먹었다. 마침 주우(朱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號)는 학천(鶴川)이고, 집이 항주 용금문 안에 있었다. 그는 경전과 역사서를 많이 읽어 모르는 것이 없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며 살고 있었다. 또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로운 기상이 있었다. 최척과 예전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최척이 촉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가지고 찾아왔다. 반쯤 취했을 즈음, 주우가 먼저 최척에게 말했다.

[A] “여보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들 오래 살고 싶어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고금천하(古今天下)를 통틀어 본들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환약이나 먹고 굶주림을 견디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산 귀신과 이웃이 되려 하는가? 자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오나라와 월나라를 오가면서 비단과 차를 팔며 남은 생애를 즐기는 건 어떠한가? 이 또한 세상을 통달하는 한 방법일 걸세.”

주우의 말에 최척은 마음이 상쾌해지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1600년 봄, 최척은 주우를 따라 상선을 타고 무역을 하다 안남* 어느 지역에 배를 정박하게 되었다. 이때 일본 배 십여척이 같은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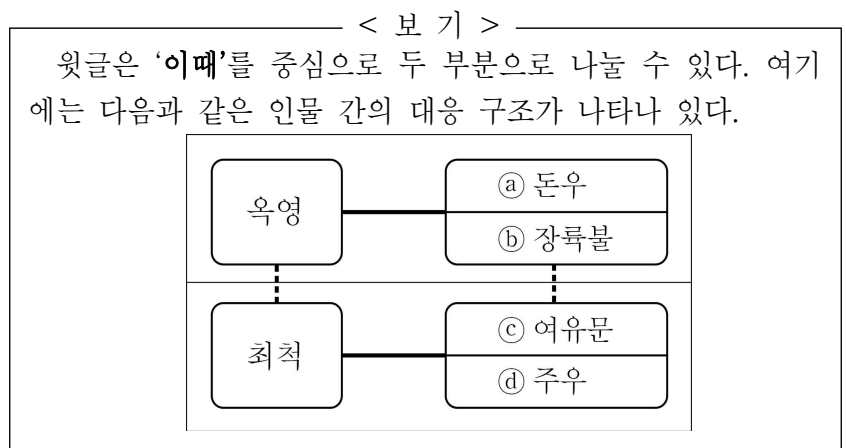
— 조위한, 「최척전」 —

- * 장륙불: 일 장 옥 척의 불상.
- * 소흥부: 중국 절강성에 위치.
- * 청성산: 중국 사천성에 있는 도교의 성지.
- * 금련단: 장생불사(長生不死)의 황금 환약.
- * 안남: 지금의 베트남.

37. 윗글의 인물이 이동한 경로를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물	이동 경로
옥영	일본 나고야에 머무름. ① → 중국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다님. ②
최척	중국 소흥부에 머무름. ③ → 동정호, 악양루 등의 명소를 들름. ④ → 청성산에 들어감. ⑤

3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가 지닌 품성은 옥영과 최척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내기에 적절한 인물 설정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옥영이 ㉠에게 ‘남자인 체’하는 것과 최척이 ㉢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이후에 전개될 사건과 연관이 있겠군.
- ③ <보기>에서 설명한 구성은 전쟁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는 옥영과 최척의 삶을 함께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④ ‘삶에 뜻을 잃은’ 옥영과 ‘세상에 뜻을 버린’ 최척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와 ㉣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군.
- ⑤ <보기>에서 설명한 대응 구조는 옥영과 최척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공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군.

39. ㉠과 같은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고무친(四顧無親) ② 다기망양(多岐亡羊)
-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④ 좌고우면(左顧右盼)
- ⑤ 호사다마(好事多魔)

40. [A]에 드러난 ‘주우’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실리를 감추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체험을 들려주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상대방의 동조를 구하고 있다.
- ④ 윤리적 명분을 들어 상대방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41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리고 성긴 매화(梅花)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축(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제2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香氣)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제3수>

눈으로 기약(期約)터니 네 과연(果然) 피었구나
 황혼(黃昏)에 달이 오니 그림자도 성기구나
 청향(清香)이 잔(盞)에 뿔으니 취(醉)코 놀려 하노라
 <제4수>

황혼(黃昏)에 뜬 달이 너와 기약(期約) 두었더니
 함리(閤裡)*에 자던 꽃이 향기 놓아 맞는구나
 내 어찌 매월(梅月)이 벗 되는 줄 몰랐던고 하노라
 <제5수>

- 안민영, 「매화사」 -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

* 함리: 방 안.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매화사」는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연시조에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각 수를 통합하는 구성 원리가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행위나 ‘눈’, ‘달’과 같은 다른 자연물과의 조응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 ① <제2수>에서 화자는 ‘어리고 성긴 매화’가 꽃을 ‘두세 송이’ 피운 것을 ‘눈’과의 기약을 지킨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 ② <제2수>에서 화자가 ‘축 잡고 가까이 사랑’하는 행위에 매화가 향기를 내어 조응하고 있다.
- ③ <제3수>에서 ‘눈’과 ‘달’의 조응이 이루어진 후에야 화자와 ‘매화’ 사이에도 조응이 일어나고 있다.
- ④ <제4수>에서 ‘달’이 뜨자 매화가 ‘그림자’를 나타내고, 화자의 ‘잔’에도 매화의 ‘청향’이 차오르고 있다.
- ⑤ <제5수>에서 화자는 ‘함리에 자던’ 매화가 일어나 향기를 내는 것은 ‘황혼에 뜬 달’을 맞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옛날 어느 가난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 옷만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된다.

만형 우리들이 가 버리면 여기 남은 형제자매 그 누가 보살펴 주겠소?

노파·남자3 그건 염려 말아. 우리가 정성껏 보살펴 주겠네.

둘째 우린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몰라 못 간다니.....

둘째 우리 모친 어느 곳에 계실는지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살았으면 이승 있겠고 죽었으면 저승 있겠지.

막내 우린 당장 떠나겠소. 떠날 때가 분명하듯 돌아올 때 분명하게 기약이나 정합시다. 십 년 기약 어떻겠소?

노파·남자3 (치마에 모은 노잣돈을 막내에게 준다.) 십 년 기약 그제 종군! 자네들이 그때까지 꼭 찾아서 데려오게.

만형 막내 네가 바보구나! 노잣돈을 받았으니 안 떠날 수 있겠느냐!

둘째 (만형을 붙잡고 탄식하며) 차마 못갈 이승 길을, 몰라 못갈 저승길을 울며불며 가야겠네!

막내 (일곱 자식들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몸 성히들 잘 계시오. 우리 어머니 꼭 찾아서 모셔올 테요.

만누나 장하구나, 우리 막내! 십 년 기한 차기 전에 꼭 찾아서 모셔 오너라!

(열 자식들이 세 자식들과 일곱 자식들로 나뉘 이별한다. 만형, 둘째, 막내는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구경꾼들도 퇴장한다. 일곱 자식들은 무대 후면으로 물러간다. 만누나는 무대 가운데서 세 자식들이 나간 방향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 이별의 서러움이 역력한 모습이다. 만누나,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어 관객석 쪽으로 다가와서 말한다.)

만누나 나는 자꾸만 손을 흔들었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막내가 멀리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건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죠. 가난한 어린 시절, 나의 슬픈 기억 속에는, 가족과의 이별이 있어요. 노오란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던 황톳길, 그 바짝바짝 메마른 황톳길을 오빠들이 떠나가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만형 울지 말고 십 년만 기다려라! 그럼 성공해서 돌아올게!

만누나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틈을 노려서, 도망치듯이 몰래 집을 떠나가는 오빠들..... 난 훌쩍훌쩍 울면서 손목이 떨어져라 떨어져라 흔들었죠.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무대 가운데로 가서 세 자식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하여 외친다.) 가는 듯이 돌아들 오소! 기다리는 마음, 미치고 달치겠네!

(중략)

만형 여기가 세 갈래 길이구나. 그동안엔 우리 함께 다녔으나, 지금부터는 제각기 길을 택해 가기로 하자.

둘째 (표지판을 소리 내어 읽는다.) 서울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산으로 가는 길..... 형님은 어느 길로 가시려오?

만형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해봤지만, 우리 어머니는 도망간 게 여실하다. 열 명 자식 키우느라 그 고생이 막심한데 평생 수절하기 또 얼마나 힘들었겠니? 답답한 맘 풀어보려 서울 구경 갔을 테니, 난 이쪽 서울로 가는

길을 택하겠다.

둘째 나도 별의별 생각 다 했소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는 죽은 것 같소. 혹시나 바다에는 용궁 있어 저승과 통한다 하니,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택할 테요.

만형 막내 너는 어쩔 거냐?

막내 나도 여러 생각 다 했소만, 우리 어머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소. 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승도 살펴보고 저승도 살펴볼 테요.

만형 네 생각이 그리하면 저쪽 산으로 가는 길이 네 길이다. 이제 각자 길로 가기 전에 노잣돈을 나눠 갖자. (노잣돈을 삼등분으로 나눈 다음, 자기 몫에서 조금 덜어 막내에게 준다.) 막내야, 너는 어리니 노잣돈을 더 가져라.

막내 아니요, 형님. (자기 몫에서 덜어내 만형과 둘째에게 준다.) 나는 젊으니 형님들이 더 가지시오.

둘째 (만형과 막내에게 자기 몫을 덜어주며) 형님도 더 가지시고, 막내도 더 가져라.

만형 우애 깊은 우리 형제, 여기에서 헤어지다니..... 십 년 기한 잊지 말고 다시 만나자!

둘째 형님이나 잊지 마요! 막내야, 너도 잊지 마라!

만형 (길을 나눠 떠나는 둘째와 막내에게 손을 흔들어 전송하며, 목이 맨 소리로) 너희들, 어머니를 꼭 찾아 모셔 오너라!

(만형, 관객석으로 다가와서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

만형 어머니를 찾다니, 그게 뭡니까? 사람이란 그 누구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으며,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찾는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꿈은 화가였습니다. 오색 물감으로 하늘의 태양과 구름, 땅의 언덕과 나무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었지요. 그런데 중학교 땐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질병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어요. 고등학생 시절엔 장군보다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 졸업할 무렵 그 모든 것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술가가 되려는 욕구, 군인이 되려는 욕구, 정치가가 되려는 욕구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입으며) 어머니를 찾기는 찾아야 할 텐데..... (이정표에다가 가서 방향판을 바라본다.) 서울로 가는 길, 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 이강백 원작·김아라 연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 작품에서 무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		관객석
A	B	C

A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B에서는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A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의 일부가 B에서 언급되면서 두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이 ‘옷’을 입고 벗음은 A와 B의 상호 전환을 알리는 장치이다.
- ③ B에서 등장인물들은 C의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말하는 위치를 바꾸고 있다.
- ④ C의 관객들은 A와 B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극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 ⑤ B에서는 A에서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C의 관객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45. ㉠, ㉡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 찾기’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세 갈래 길’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의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함께 다니던 형제들의 이별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서울’, ‘바다’, ‘산’으로 가는 길은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떠나는 인생의 길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욕망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43.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세 자식들’은 서로 간의 우애가 돈독하다.
- ② ‘세 자식들’은 기꺼이 어머니를 찾는 길을 나선다.
- ③ ‘세 자식들’은 십 년 기약을 하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 ④ ‘세 자식들’은 세 갈래 길에서 각자가 선택한 길로 떠난다.
- ⑤ ‘세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방을 두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